

# Determinants of Korean SMEs' Intention to Use Export Insurance\*

Kim, Chang-Bong\*\* · Yang, Hye-Jeong\*\*\*

---

## 〈Abstract〉

---

**Purpose** : This study identifies the decision-making stages of subscribing to export insurance and related services of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investigates the causal relationship leading to perceived risk, perceived usefulness, and intention to us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t was attempted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the intention to use export insurance would increase if export insurance was perceived to be useful after recognizing the transaction risk, which is an external stimulus, for export companies that have actually used export insurance. To this end, the S-O-R theory and the Haze multiple parallel mediation model were proposed to analyze empirically, and the perceived usefulness of export insurance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price recovery, export support, and work efficiency.

**Results**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erceived usefulness played a role in mediating perceived risk and intention to use, and among the three perceived usefulness, the usefulness of payment recovery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perceived risk and intention to use.

**Conclusions** : This result shows that the recovery of export payments comes first in all the causes of companies subscribing to export insurance and the usefulness they want to obtain through insurance.

**Keywords** : Export Insurance, SOR Theory, Haze Model

---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Research Scholarship in 2022

\*\* First Author,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kimchangbong@cau.ac.kr](mailto:kimchangbong@cau.ac.kr)

\*\*\* Corresponding Author, Doctor's Course, Department of Trade and Logistics, Chung-Ang University, [diddidwjd@cau.ac.kr](mailto:diddidwjd@cau.ac.kr)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이용의도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

김창봉\*\* · 양혜정\*\*\*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 의사결정 단계를 파악하고 인지된 위험-지각된 유용성-이용 의도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수출보험을 실제로 이용해본 적이 있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자극인 거래위험을 인지한 후 수출보험의 유용성을 지각하게 된다면 수출보험 이용 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계 및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S-O-R 이론과 헤이즈 다중 병렬매개 모형을 도입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수출보험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대금회수, 수출지원, 업무효율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실증분석결과, 지각된 유용성은 인지된 위험과 이용 의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세 가지의 지각된 유용성 중 대금회수 유용성이 인지된 위험과 이용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기업들이 수출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원인과 보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유용성이 모두 수출 대금회수가 우선임을 보여준다.

주제어 : 수출보험, SOR이론, 헤이즈 모형

## 목 차

I. Introduction	IV. Empirical Results
II. Literature Review	V. Summary and Conclusion
III. Model and Data	References

\* 이 논문은 2022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제1저자,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kimchangbong@cau.ac.kr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물류학과 박사과정, diddidwd@cau.ac.kr

## I. Introduction

최근 IMF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금액 규모가 연간 5천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총 교역규모는 연간 1조 달러로 현재 전 세계 무역순위 6위에 달하는 무역대국이다.<sup>1)</sup>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금에 오기까지 정부와 관련 부처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 활동을 지원하였다. 특히 수출지원책 중 하나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하여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이 해외에 있는 거래처와 안정적인 수출입 관계를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한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우대정책을 시행하여 보험료를 할인하고 서류 제출을 다소 간소화하는 등 미결제된 대금을 보상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생산비용을 미리 융통해주고 수출업무 관련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험 인수액의 90%를 차지하는 단기수출보험의 작년 중소기업의 이용률이 약 23%,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 이용률은 36%에 그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이용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주로 수출보험 및 공적보험이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거나 (Lee Dong-ju, 2017; Lorié, 2019), 수출보험의 법리적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나(Kim Kyeong-Chul and Jeong Hong-Ju, 2020; Kim Jae-Doo, 2020; Choi Byeong-Kyu, 2019), 최근 중소기업 관련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소기업 보험 활용에 관한 연구가 논의되는 등 (Kim Jeong Ryeol, 2019; Yu Kwang Hyun, 2020; Yoo Seong-Gyun, 2018), 중소기업을 겨냥한 보험연구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Song Jeong-Seok et al., 2021).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수출보험을 이용하게 되는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수출보험을 이용하게 되는 원인과 중소기업이 수출보험을 통해 느끼는 유용성을 분석한 연구는 Yoo Seong-Gyun(2016), Yin(2017), Choi Kwang Ho(2018), Choi Areum(2018)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수출기업이 보험 가입 동기로서 인지된 위험에 관한 실증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문제 바탕으로 본 연구목적은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S-O-R(자극-유기체-반응) 이론을 적용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해당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보험에 관련한 국내 및 해외 선행연구 조사하고 한국무역보험 및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선행연구와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작성해 무역협회 리스트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활용기업 리스트 등을 활용해 수출보험제도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인지된 위험, 지각된 유용성, 수출보험 이용의도를 도출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활용에 있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활용을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를 탐색하고 점검함으로써 보험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수출보험의 유용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Literature Review

### 1. Current status export insurance

1968년 '수출보험법제정공포'를 통해 기반이 구축된 우리나라의 무역보험은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주도 아래 간접 지원책의 일종으로

1) IMF DATA(<https://www.imf.org/en/Data>)

**Table 1. 2018~2020 Insurance business volume by service**

	Insurance business volume / percentage		
	2018	2019	2020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133,869 / 90.07%	139,638 / 89.61%	149,725 / 90.71%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8,264 / 5.56%	3,876 / 2.49%	3,921 / 2.38%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616 / .41%	784 / .50%	741 / .45%
Export Bond Insurance	49 / .03%	135 / .09%	338 / .20%
Overseas Business Credit Insurance	456 / .31%	6,211 / 3.99%	4,687 / 2.84%
Export Credit Guarantee	2,695 / 1.81%	2,925 / 1.88%	3,353 / 2.03%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775 / .52%	910 / .58%	989 / .60%
Overseas Construction Works Insurance	13 / .01%	-	-
Service Export Credit Insurance	117 / .08%	22 / .01%	-
Export-based insurance	481 / .32%	207 / .13%	67 / .04%
Reliability insurance for parts and materials.	.9 / .00%	-	-
Import Credit Insurance	1,292 / .87%	1,126 / .72%	1,235 / .75%
total	148,627 / 100%	155,834 / 100%	165,057 / 100%

Sourc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2020), Insurance business volume by service

시행되어 수출입기업의 국제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무역보험이란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로써 공사가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해 수출 진행을 도모하거나 중요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업체의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K-SURE, 2018).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무역보험은 수출보험과 수입보험으로 나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수출보험에 집중하기로 한다.

거래당사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국

제거래의 특성상, 상거래위험의 발생은 필연적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수출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위험을 제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국제거래에서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신용위험과 비상위험, 환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보험을 사용한다. 즉, 수출보험은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대비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출입자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 진행을 장려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K-SURE는 작년 한 해 수출입 지원에 총 165조 1천억 원을 지원하였고, 그중 단기성 수출보

**Table 2. 2018~2020 ST Insurance business volume by company size**

Size	2018	2019	2020
Large	87,267 / 65.20%	88,961 / 63.71%	96,029 / 64.14%
Medium	18,658 / 13.94%	19,501 / 13.97%	19,141 / 12.78%
Small	27,945 / 20.87%	31,176 / 22.33%	34,556 / 23.08%
Total	133,869	139,638	149,725

Sourc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2021) Annual Report 2020

험에는 149조 7천억 원, 중장기성 수출보험에는 9조 7550억을 투자하였다. <Table 1>을 확인해보면 최근 3년간 단기수출보험 인수율은 평균 90%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장기수출보험의 경우, 2018년에는 5.56%였지만 그다음 해부터 2.0%대로 하락하였다. 이는 산업설비, 플랜트, 선박 등의 자본재 상품 수출을 보장하는 중장기수출보험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국가간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어진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부품소재신뢰성보험 또한 2019년부터 실적이 하락하거나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반적인 전체 인수실적은 상승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보험종목 중 단기수출보험은 전체 인수실적의 90%를 차지할 만큼 기업들의 이용도가 높은 편이다. <Table 2>는 단기수출보험의 기업 규모별 실적을 나타낸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인수실적이 조금씩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은 보험이용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Kang Hyo-Won(2005)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온 결과로, 지난 15년간 수출보험이 대기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앞서 밝힌 대로 중소기업의 관점에 입각한 수출보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2. Literature Review

수출보험의 영역 확대와 다양화는 수출보험

관련 연구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수출보험 연구는 일반적으로 수출보험 혹은 공적보험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실증적 영향에 집중하였다. Hideki(1996)은 수출보험이 다양한 정치적 위험과 해외시장 위험으로부터 국내의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유용한 정책임을 지적하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우대금리 이상의 보험료를 책정해 수출활성화에 수출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Auboin and Engemann(2014), Turguttopbas and Küçüker(2020) 등의 연구에서도 수출보험을 통해 수출성과와 더불어 경제위기 및 국제무역의 불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국내 문헌에서도 대부분 수출보험의 긍정적 성과에 대해 논의하였다(Park Young-Ho, 2016; Choi Chang-Youl et al, 2016). 하지만 선행연구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출보험의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다분한 상태이다. Mah(2003)는 일본 수출보험 보조금의 일본 수출 공급 촉진 여부 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수출보험 제공은 일본의 수출촉진에는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국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계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Agarwal and Wang(2017)은 미국 수출입은행의 무역금융은 미국 수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국 중소기업들 또한 수출입은행 무역금융 승인으로 인한 수출 혜택은 거의 받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Koks(2018)는 수출신용보험과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및 GDP의 인과관계를 찾으려 하였지만, 태국을 제외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수출신용보험이 국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긍정

적인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2000년대 이후로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활용 관련된 연구가 논의되었는데, 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활용 실태 및 방안, 중소기업 대상 보험 종목 등을 주제로 하여 수출보험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실무적 정책을 제안하였다. Yoo Seong-Gyun(2016)은 수출중단 중소기업의 사례를 들어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기관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참여하는 지원체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고, Park Hyun-Chae and Lim Sung-Chul(2013)은 수출스타트업 무역보험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출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보험료를 할인하고 신용보증 증액을 고려하는 등 조건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이어 Park Gwang-So and Ko Jae-Soo(2018)은 수출지원제도와 정부지원 기관이 현황을 제시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Yu Ghwang-Hyun(2020)의 경우 송금결제가 만연해진 국제무역 시장에서 선지급 결제조건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기존의 연구는 수출보험의 영향을 확인하거나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이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나 각 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자원 및 재정자원의 제한으로 인하여(Yoo Seong-Gyun, 2016) 수출보험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선행된 연구는 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기에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선제적으로 수출보험을 이용하게 되는 외부적 자극을 파악하거나 수출보험에 대한 유용성 지각과 이용의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Stimulus-Organism-Response Theory

SOR(Stimuli-Organism-Response)이론에 따르면 외부환경 자극(Stimuli)이 정서적 반응 즉, 유기체(Organism)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행동 반응(Response)을 유도한다(Mehrabian and Russell, 1974). 선행된 연구에선 외부환경 자극으로 인해 야기된 정서적 반응이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구매의도에 끼치는 영향에 집중하였다(Holbrook, 1984; Xiao et al., 2019). 특히 Wilkie(1994)는 소비자가 정보를 검색할 때 정서적인 반응을 통해 대안을 비교하고,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소비자는 의사결정 전반에 걸쳐 정서적인 반응에 몰두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SOR 모델은 주로 소매, 유통, 서비스 분야 등 개인 또는 소비자 행동을 측정하는 심리적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동시에 SOR의 다양한 특성을 활용해 기업 측면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되었다(Kudla and Klaas-Wissing, 2012). 비즈니스 연구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SOR 모델이 조직의 측면을 측정하는 데에 탐색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Li et al., 2020; Ting et al., 2017). Matos and Krielow(2019)는 외부 자극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과 기업 사이의 상호 관계를 측정할 때 SOR 프레임 워크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Chen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수출보험 사용에 착안하여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사용 결정에 SOR 프레임 워크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 1) Stimulus(Perceived Risk)

자극은 기업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써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말한다(Robb and Stehpen, 2021). 수출기업에 작용할 수 있는 외부적 자극으로는 시장 간 거리(Mayrhofer, 2020), 정부의 규제(Mato and Krielow, 2018), 기업 간 경쟁(Sila and Dobni, 2012) 등이 있지만 불확실한 위협에 대한 인지(Lee Je-Hong, 2020)도 기업의 자극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기업은 국제거래 속에서 잠재된 거래위험에 노출되어있는데, 거래위험에는 대표적으로 상대기업의 파산이나 지급불능으로 발생하는 신용위험과 상대국의 전쟁이나 내란, 수입제한조치와 같이 계약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계약 이행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비상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기업이 대금회수를 어렵게 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다. 즉 위험은 손실의 기댓값, 손실의 가능성과 손실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Kim Sung-Kuk, 2019), 기업들은 거래상 위험 요인을 지속적인 무역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하려는 인지된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다(Kim Sung-Kuk and Park Myeong-Sop, 2015). 수출기업은 대금 미회수에 대한 불안감,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Choi Kwang-Ho, 2018), 위험 발생 이후 해결방안이 다소 까다롭다는 점을 거래위험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 2) Organism(Perceived Usefulness)

유기체는 기업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지적 내부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극과 반응 사이를 중재하며 유기체의 개입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든다(Attiq et al., 2017). 기업은 위험을 인지함으로써 수출보험 사용의 자극을 느끼고 수출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지각된 유용성은 조직의 경영자 혹은 관리자들이 특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조직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Ali et al, 2015), 시스템을 채택하려는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Hussein et al., 2019). 수출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해 수출기업이 지각할 수 있는 유용성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금회수, 수출지원, 업무효율 기능이 대표적이다.

### (1) Perceived Collecting Payments Usefulness(PCP)

대금회수 유용성은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거나 자금 융통이 어려울 때 수출보험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성 수출보험에 부보된 수출

채권을 유동화하여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채권 변제기 전에 자금조달이 가능하거나(Choi Areum, 2018), 수출기업에 미지급된 대금을 보장하고 수출보증보험을 통하여 수출기업과 금융기관에 의무이행을 담보한다(Jeong Hee-Jin, 2021). 따라서 중소기업은 수출보험을 통해 미결제된 대금을 회수하고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면서 대금회수 유용성을 지각할 수 있다.

### (2) Perceived Export Support Usefulness(P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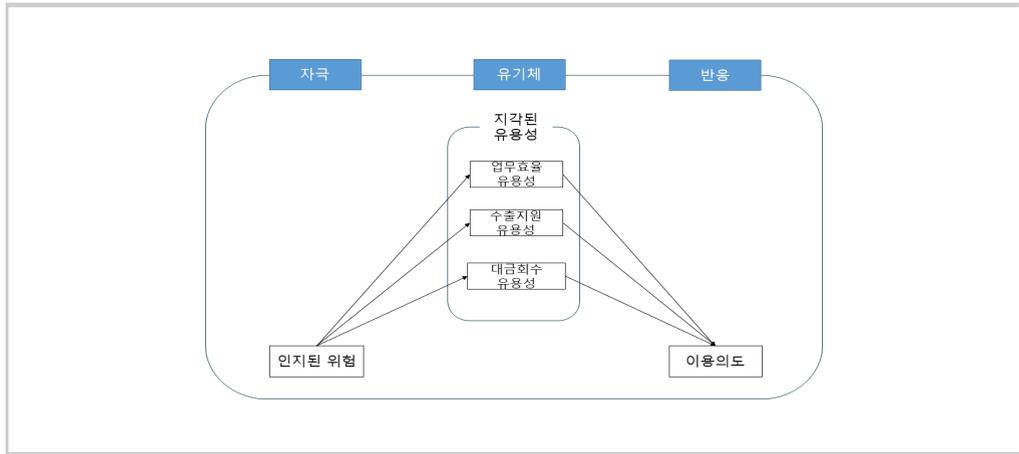
수출지원 유용성은 수출 전반에 대한 금융·교육·혁신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sup>2)</sup>을 통해 교육 정보를 받고 자금 관리,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Yoo Seong-Gyun, 2016) 이를 수출보험 이용에 유용성으로 지각한다.

### (3) Perceived Work Efficiency Usefulness(PWE)

업무효율 유용성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용이 수출업무에 효율성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용조사를 통해 수입기업의 신용위험을 대비하거나(Kang Dong-Yoon and Choi Kwang-Ho, 2014), 미수채권 회수절차를 통해 기업의 손실을 보장하고(Kim Kyeon-Chul, 2014) 미수 회피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Jang Eun-Hee and Choi Young-Joo, 2019). 이 밖에도 온라인 수출업무 개시로 업무의 간편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Kim Chang-Bong and Park Young Yeon, 2015)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에도 증진 효과를 주고 있다(Oh Min-Hong et al., 2020). 따라서 중소기업은 수출보험 이용에 있어 업무효율의 유용성을 지각할 수 있다.

2)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채권 관리, 수출금융 조달 등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체보험, 수출안전망을 운용하여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음.

Figure 1. Research Model



### 3) Response(Usage Intention)

반응은 기업의 행동으로써 기업이 외부자극을 받아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 수출보험을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사결정이란 접근 또는 회피 행동을 의도하는 것으로(Xiao et al., 2019), 중소 수출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과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지 혹은 이용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무역보험공사 회원사 리스트 중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22일부터 7월 18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9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회수율 12.9%),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응답 15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는 179부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설문 응답 결과는 SPSS 26.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 Ⅲ. Research Design

## 2. Research Model

### 1. Sample Setting and Data Collection

본 연구대상인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의 수출보험제도 활용 의도에 관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측정변수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측정요인들은 수출중소기업의 수출보험 활용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정된 요인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무역협회 리스트와 한국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과 관련 서비스는 대금미회수 위험을 회피하게 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 기업의 국제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이 있어 우리나라 중소 수출기업에 중요한 제도지만, 수출보험의 이용의도를 유기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OR 모형을 이용하여 수출기업이 위험을 인지하고 보험의 유용성을 지각해 보험을 이용하게 되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지각된 유용성은 세부적으로 대금회수, 수출지원, 업무효율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개념적 연구모형과 측정변수의 조작적

**Table 3. Explanation of Variables**

Variables		Explanation	Source
Perceived Risk		Transaction risks recognized by exporters.	Kim and Lee(2012), Choi(2018), Kim(2020)
Perceived Usefulness	Collecting Payments	The usefulness of collecting payments that exporters can obtain through the use of export insurance.	Kang(2005), Kim(2014), Kim(2015), Kim and Lee(2021)
	Export Support	Export support that exporters can obtain by utilizing Insurance.	Park(2019) Lee and Kim(2017), Lee(2021)
	Work efficiency	The work efficiency that exporters can obtain through the use of export insurance.	Kim and Park(2015)
Usage Intention		Intention to use the export insurance system.	Xiao et al.(2019)

정의는 각각 [Figure 1] 및 <Table 3>과 같다.

### 3. Research Hypothesis

#### 1) Perceive Risk and Perceived Usefulness

수출거래 시 수출기업은 결제위험과 환위험 등의 무역위험에 노출된다. 수입자의 신용위험이나 수입국의 비상위험과 같은 수출자가 예상하지 못한 무역위험으로 인하여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결제위험관리에 미흡한 편이다(Choi Gwang-Ho, 2018). 특히 위험 발생 이후 수출 지원기관의 지원 없이 민간보험사를 이용하거나 중소기업의 자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까다로운 뿐만 아니라 높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Kim Tae-Hwang, 2020), 규모가 다소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위험으로 인지한다. 수출보험의 대금회수 기능은 본질적으로 미결제 위험의 손실을 보상하고(Kim Sok-Tae and Lee Hee-Sook, 2012), 위험 발생 사후처리 관리를 가능하게 하므로 중소 수출기업은 이를 수출보험의 대금회수 유용성으로 지각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거래상에서 인지된 위험이 수출보험에 대한 지각된 대금회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우리나라 중소 수출기업의 잠재된 무역 위험에 대한 인지는 수출보험의 대금회수 유용성에 대한 지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수출 초보 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일이 어렵기에 누군가의 지원을 바라는 형편이다(Lee Sang-Jin and Kim Hueong-Cheol, 2017). 특히 해외시장 접근 기회가 많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기회와 자원이 부족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Park Young-Ho, 2019). 신규시장 개척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느낀 기업은 이를 위험으로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과 수출 안전망 보험을 실시하여 수입자 신용조사 면제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을 주고 있으며(Choi Chang-Youl and Ham Hyung-Bum, 2013), 수출채권 관리와 수출금융 조달 등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

서 전반적인 수출업무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를 수출지원 유용성으로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거래상에서 인지된 위험이 수출보험에 대한 지각된 수출지원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잠재된 무역 위험에 대한 인지는 수출보험의 수출지원 유용성에 대한 지각에 정(+)<sup>의</sup>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외에 있는 상대기업과 거래할 때 상대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가 부족한 수출기업은 신용위험 등 무역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신용위험 발생으로 인한 미수채권은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약화할 수 있다(Kang Dong-Yoon and Choi Kwang-Ho, 2014). 상대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미실시는 무역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며(Choi Byeong-Gyu, 2016) 미수채권은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어(Oh Won-Suk and Ahn Yu-Shin, 2016)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 위험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수출보험 부보 전 상대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필수로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신용조사를 직접 지원하고 있어 기업에서 신용조사를 직접 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하다(Hong Gil-Jong and Kim Koo-Tae, 2012). 더불어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의 손실을 보장하고(Kim Kyeong Chul, 2014) 미수 회피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Jang Eun-Hee and Choi Young-Joo, 2019). 이 밖에도 온라인 수출보험 제공으로 업무에 편의성과 간편성을 제공함으로써(Kim Chang-Bong, 2015) 업무처리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를 업무효율을 위한 유용성으로 지각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거래상에서 인지된 위험이 수출보험에 대한 지각된 업무효율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잠재된 무역 위험에 대한 인지는 수출보험의 업무 효율 유용성에 대한 지각에 정(+)<sup>의</sup>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Mediation of Benefit of Perceived Usefulness between Perceived Risk and Usage Intention

Zammit et al.(2009)는 수출보험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수출보험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시사한 바 있다. 즉 보험을 사용하였을 때 유용성이 높을수록 수출보험의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Chung Chang-Keun and Kim Kwang-Seo(2011)는 신용위험 및 결제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보험에 대한 정보와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출보험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Heo Kyung-Jun et al.(2015)는 중소기업은 대금결제 지원의 용이성으로 인해 수출보험을 이용하게 된다고 함으로써 선행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있을뿐더러 Heo Kyung-Jun et al.(2015)의 용이성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제 위험에 따른 보험 이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대금 미회수 회피, 보상 측면과 유사하다. 아울러 Yin(2018)은 수출기업이 수출보험의 대금회수 용이성을 숙지할수록 수출보험 활용의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함에 따라 본 연구의 지각된 대금회수 유용성 변수의 중요성도 함께 나타난다.

**가설4: 대금회수 유용성은 수출보험 이용의도에 정(+)<sup>의</sup> 영향을 미쳐 인지된 위험과 수출보험 이용의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중소수출 기업은 보험을 이용함에 따라 한국 무역보험공사의 신규사업발굴지원과 무역이행 지원 등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수출지원 유용성 지각이 중소기업의 수출보험과 관련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질 것이다(Na Jung-Ho, 2020). 예를 들어, 보험 업무를 도맡아 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하고 보험료가 부담되는 중소기업은 지자체나 단체가 대신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체보험을 통하여 보험료 면제와 가입 간

**Table 4. Sample statistics**

Classification		N	(%)
Firm size	mid- market enterprise	35	19.6
	SMEs	144	80.4
total		179	100
K-SURE Usage ratio	under 20%	39	21.8
	21~40%	29	16.2
	41~60%	24	13.4
	61~80%	13	7.3
	over 81%	74	41.3
total		179	100
Insurance Products	Short-term	106	52.2
	Medium and Long term	10	4.9
	Pre-shipment export credit guarantee	42	20.7
	Pre-shipment export credit guarantee	9	4.4
	Foreign exchange risk	8	3.9
	Group insurance	21	10.3
	etc	7	3.4
total		203	100

편화의 유용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이용이 증가한다(Choi Chang-Youl and Ham Hyeong-Bum, 2013). 단체보험 이외에도 중소기업 전용 단기수출보험 상품인 '중소기업 Plus'를 이용한다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부보 범위는 늘어나 수출지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수출보험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Jae-Doo, 2020).

**가설5: 수출지원 유용성은 수출보험 이용의도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쳐 인지된 위험과 수출보험 이용의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수출기업은 수출보험과 관련 서비스를 통해 업무처리 유용성을 지각해 수출보험 이용을 결정할 수 있다(Park Se Hwan, 2017). 중소기업이 보험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업무효율 유용성은 대표적으로 리스크 관리 업무 효율성인데, Chang Dong-Han and Yu Kwang-Hyun(2011)

는 수출보험을 통한 전사적 리스크 업무의 효율성 지각이 수출보험 이용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와 연결되어 Park Jae-Hyeong(2018)은 중소기업 수출기업이 위험관리 업무 효율성을 지각할수록 수출보험 활용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가설6: 업무효율 유용성은 수출보험 이용의도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쳐 인지된 위험과 수출보험 이용의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IV. Empirical Results

### 1. General Characteristics

응답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6.1%, 중견기업이 19.6%, 중소기업이 74.3%로 집계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본 연구에 표본이 올바르게 추출되었다고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mp; Cronbach's alpha

Cons	Measure	Com	1	2	3	4	5	Cronbach's $\alpha$
PWE	PWE1	.764	.793	.018	.256	.235	.119	.915
	PWE2	.781	.736	.295	.275	.167	.221	
	PWE3	.751	.728	.172	.218	.358	.129	
	PWE4	.837	.723	.237	.291	.120	.399	
	PWE5	.738	.654	.217	.357	.269	.253	
PES	PES1	.904	.159	.877	.168	.240	.156	.935
	PES2	.894	.105	.869	.218	.209	.190	
	PES3	.850	.242	.836	.190	.195	.137	
PCP	PCP1	.842	.340	.195	.795	.137	.192	.925
	PCP2	.809	.314	.221	.725	.297	.219	
	PCP3	.819	.406	.231	.675	.296	.240	
	PCP4	.847	.330	.335	.653	.376	.241	
UI	UI1	.859	.248	.265	.245	.795	.187	.885
	UI2	.801	.241	.232	.169	.776	.242	
	UI3	.757	.309	.294	.323	.670	.147	
PR	PR1	.857	.282	.161	.205	.367	.758	.862
	PR2	.823	.250	.363	.316	.108	.719	
	PR3	.781	.332	.144	.242	.504	.582	
Eigenvalue			10.657	1.568	.991	.750	.748	
Variance			59.207	8.712	5.507	4.165	4.153	
cumulative variance			59.207	67.918	73.425	4.153	81.744	
KMO-Bartlett test			.934 ( $\chi^2=2830.275$ , $df=153$ , $p\text{-value}=0.000$ )					

할 수 있다. 수출기업들이 이용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종목은 주로 단기수출보험(52.2%), 중장기수출보험(4.9%), 수출신용보증(선적 전)(20.7%), 수출신용보증(선적 후)(4.4%), 환변동보험(3.9%), 단체보험(10.3%), 기타보험(3.4%)으로 나타났다. 표본수집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졌기 때문에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산업설비, 플랜트 수출 등 계약금액이 거액인 수출거래를 보장하는 중장기수출보험은 다른 종목에 비해 비교적 낮게 집계되었다.

## 2. Reliability and Feasibility Analysis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이전에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타당도란 측정도구가 측정하려는 것을 정확히 측정하는지에 관한 것이다(Choi Hyun Cheol, 2008).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모델의 타당도를 구하였다. 먼저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KMO와 Bartlett의 구형성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KMO > .8이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연구의 KMO지수(.934)가 일반적인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변수들 간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형성 검증

Table 6. Correlation

	PR	PWE	PES	PCP	UI
PR	1	-	-	-	-
PWE	.717**	1	-	-	-
PES	.570**	.519**	1	-	-
PCP	.722**	.781**	.591**	1	-
UI	.706**	.674**	.591**	.703**	1

주: \*\*:  $p < 0.01$

결과 또한  $\chi^2(p)=.000$ 으로 나와 본 데이터는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요인적재값을 통해 집중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집중타당도의 경우 요인적재값이 .5미만일 경우 타당도가 저해된다고 인식한다(Choi Chang-Ho and You Yen-Yoo, 2017). 본 데이터의 요인적재값이 인지된 위험 3을 제외하고는 모두 .6 이상으로 기록하여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5개 구성개념의 설명력은 81.744로 일반적인 기준인 60%로 상회하고 있다. 연구척도에 타당도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다음 단계에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란 값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측정되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측정도구를 통해 어느정도로 대상의 특성을 정확하게 오차가 없이 측정하였느냐를 의미한다(Lee Hyeong-Seok, 2006). 즉, 측정도구를 통해 측정하였다 할지라도 오차가 발생한다면 해당 분석에는 신뢰도가 결여돼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hronbach's Alpha의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Nunnally와 Bernstein (1994)이 제시한 경험적 준칙을 토대로 크론바알파값이 .7 이상이 될 때 척도에 신뢰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Table 5>에서 보듯 지각된 업무효율 유용성의 Chronbach's Alpha=.915, 지각된 수출지원 유용성의 Chronbach's Alpha=.935, 지각된 대금회수 유용성의 Chronbach's Alpha=.925, 이용 의도의 Chronbach's Alpha=.885, 인지된 위험의 Chronbach's Alpha=.862로 나타나 본 연구의 구성척도는 신뢰도가 매우 높게 형성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3. Correlation analysis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두 변수 사이에 어떠한 선형적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기법으로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측정하게 된다. 즉, 연구에 활용된 각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관관계 크기는  $0 \sim \pm 1$  사이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크기 변화의 강도는  $\pm 1$ 에 근접할수록 높아지게 되고, 0에 근접할수록 낮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얻을 수 있었으며, 상관관계 계수가  $\pm .2$  미만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pm .8$  이상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Kafle 2019; Gogtay and Thatte 2017). 그리고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두 변인 간의 상관도를 검토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상관관계계수가 .5 이상 .8 미만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일반적으로 .8 미만이면 이를 벗어날 수 있다(Daoud,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 간 실시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에 따라 연구 변수들은 상관관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Table 7. Results of analysis

construct	$\beta$	se	LLCI*	ULCI**
PR→PWE	.6875	.0508	.5871	.7879
PR→PES	.6778	.0744	.5310	.8246
PR→PCP	.7553	.0551	.6466	.8641
PR→PWE→UI	.1423	.0660	.0101	.2686
PR→PES→UI	.1220	.0718	.0126	.2935
PR→PCP→UI	.1942	.0866	.0112	.3602
Total direct Effect	.8020	.0612	.6812	.9228
Total Indirect Effect	.4585	.0773	.3087	.6183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 4. Data Results

수출기업의 보험 인지된 위험과 이용의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대금회수 유용성, 수출지원 유용성, 업무효율 유용성의 병렬 삼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8)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4번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각 경로별 효과는 인지된 위험은 이용 의도 ( $\beta=.344, p<0.00$ )와 지각된 업무효율 유용성 ( $\beta=.688, p<0.00$ ), 지각된 수출지원 유용성 ( $\beta=.678, p<0.00$ ), 지각된 대금회수 유용성 ( $\beta=.755, p<0.00$ )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업무효율 유용성 ( $\beta=.207, p<0.10$ ), 지각된 수출지원 유용성 ( $\beta=.180, p<0.00$ ), 지각된 대금회수 유용성 ( $\beta=.275, p<0.00$ )는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지각된 위험이 지각된 대금회수 유용성, 지각된 수출지원 유용성, 지각된 업무효율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3이 지지되었다.

한편 인지된 위험에서 이용 의도 간 경로의 총효과는  $\beta=.802(p<0.00)$ 이었다가 매개변수들이 투입되면서 인지된 위험에서 이용의도 간 경로의 직접효과가  $\beta=.344(p<0.00)$ 으로 감소

하여 인지된 위험과 이용 의도 간의 관계를 지각된 업무효율 유용성, 지각된 수출지원 유용성, 지각된 대금회수 유용성이 다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인지된 위험과 이용의도와의 관계에서 지각된 업무효율 유용성, 지각된 수출지원 유용성, 지각된 대금회수 유용성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4번을 이용하였고,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Hong and Li, 2020)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전체 간접효과의 크기는 .4585(.3087~.6183)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결과 업무효율 유용성( $X \rightarrow M1 \rightarrow Y$ )은 .1423(.0101~.2686)으로 신뢰구간 95%에서 0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지원 유용성( $X \rightarrow M2 \rightarrow Y$ )은 .1220(.0126~.2935)으로 신뢰구간 95%에서 0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대금회수 유용성( $X \rightarrow M3 \rightarrow Y$ )도 .1942(.0112~.3602)로 신뢰구간 95%에서 0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인지된위험과 그에 따른 이용의도와의 관계에서 업무효율 유용성, 수출지원 유용성, 대금회수 유용성은 모두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인지

된 위험이 지각된 대금회수 유용성, 지각된 수출지원 유용성, 지각된 업무효율 유용성을 매개해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4,5,6이 지지되었다.

## 5. Discussion

본연구는 중소기업이 외부자극인 위험 인지를 통해서 수출보험의 유용성을 지각하게 되고, 다시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수출보험 이용의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수출기업의 보험 이용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S-O-R 이론을 적용하여 관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지각된 유용성을 대금회수 유용성, 수출지원 유용성, 업무효율 유용성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설명력을 증가시켰다. 특히 수출보험 이용과 관련하여 일부 선행연구(Yin, 2018; Park Se Hwan, 2017; Park Jae-Hyung, 2018)에서는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증명하였으나 본연구에서는 세 변수를 동시에 추정하는 병렬적 삼중매개모형을 적용해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인지된 위험과 지각된 대금회수 유용성이 각각 지각된 대금회수 유용성과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쳐 지각된 대금회수 유용성이 인지된 위험과 이용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각된 대금회수 유용성의 경우 다른 지각된 유용성에 비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일 높았는데, 이를 통해 수출기업이 수출보험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대금회수가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금회수 발생 시 책정된 보험 인수 한도 금액에 따라 보상받게 되는 보험금이 달라짐으로 보험 인수 한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거래 조건과 상대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인수 한도를 책정하고 있는데, 수출성과에 있어 보험 인수 한도의 중요성은 Seo Jung-doo(2011); Kim Jeong-Ryoel(2015) 등의 연구에서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인지된 위험과 지각된 수출지원 유용성이 각각 지각된 수출지원 유용성과 이용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쳐 지각된 수출지원 유용성이 인지된 위험과 이용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수출판로 개척, 수출금융 등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심층인터뷰 결과,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바, 수출지원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인지된 위험과 지각된 업무효율 유용성이 각각 지각된 업무효율 유용성과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쳐 지각된 업무효율 유용성이 인지된 위험과 이용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인터뷰 결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조사와 신용조사 기간은 중소기업의 업무효율성에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실상 그 만족도는 낮았다.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용조사의 기간은 평균 11일로 Gang Dong-Yoon and Choi Kwang-Ho(2014) 등의 연구에서도 시사하고 있듯 신용조사를 통한 수입국과 기업의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회피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조사 절차를 간편화하고 신용조사 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 V. Summary and Conclusion

본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사용을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해 수출기업이 수출보험을 이용하게 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O-R 이론을 적용하여 인지된 위험, 지각된 유용성, 이용의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수출보험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Jeong Hee-Jin(2021); Yoo Seong-Gyun(2016); Kim Chang-Bong and Park Young-Yeon(2016)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지각된 대금회수 유용성, 지각된 수출지원 유용성, 지각된 업무효율 유용성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인지된 위험이 지각된 대금회수 유용

성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Wang(201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Wang(2016)의 연구에서는 인지된 위험을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으로 한정하였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와 Lee Je-Hong(2020); Choi Kwang-Ho(2018)의 연구를 통해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위험 해결의 어려움’을 추가하여 인지된 위험과 지각된 대금회수 유용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둘째, 인지된 위험이 지각된 수출지원 유용성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이 수출보험과 특별 프로그램을 통한 수출지원 효과를 제시했던 Park Young-Ho(2019); Yoo Seong-Gyun(2016); Choi Chang-Yeoul and Ham Hyeong-Bum(2013)의 연구와 같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인지된 위험이 지각된 업무효율 유용성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 Dong-Hyun(2018); Chang Dong-Han and Yu Kwang Hyun(2011)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업무에 집중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보험을 통한 업무 간편성 제공’을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넷째, 지각된 대금회수·수출지원·업무효율 유용성은 이용의도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쳐 인지된 위험과 이용의도 사이를 삼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각각의 지각된 유용성들이 독립적으로 이용의도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쳤으나(Kim Jae-Doo, 2020; Park Se Hwan, 2017; Yin, 201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 간에 상호적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인지된 위험과 이용의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대금회수, 수출지원, 업무효율 유용성의 삼중매개 효과를 검정하였다. 특히 세 가지 유용성 중 지각된 대금회수 유용성이 이용의도에 끼치는 영향력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출기업들은 대금회수를 목적으로 수출보험을 이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연구는 수출보험 인지된 위험이 지각된 보험 유용성과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험활용 증대방안을 실무적으로 제시했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분석에는 응답기업의 거래조건과 산업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데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또한, 유효표본으로 179부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수출보험 활용 증대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을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 대상을 수출보험을 이용해본 기업으로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증대방안 모색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험 미이용 기업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다면 유의미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1. Agarwal, N. and Wang, Z. (2018). “Does the US EXIM Bank really promote US exports?”, *The World Economy*, 41(5), pp.1378-1414.
2. Ali, H., Ali, T., Matar, Z., and Jawad, F. (2015). “Citizens’ acceptance and readiness towards adopting e-participation tools in kingdom of Bahrain”, *International Journal for Infonomics (IJ)*, 8(2), 1029-1036.
3. Attiq, S., Rasool, H., and Iqbal, S. (2017). “The impact of supportive work environment, trust, and self-efficacy on organizational learning and its effectiveness: A stimulus-organism response approach”, *Business & Economic Review*, 9(2), 73-100.
4. Auboin, M., and Engemann, M. (2014). “Testing the trade credit and trade link: evidence from data on export credit insurance”, *Review of World Economics*, 150(4), pp.715-743.
5. Chang, D. H. and Yu, K. H. (2011), “A Study on the Role of Export Insurance for Enterprise Risk Man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49, pp.379-405.

6. Chen, Y.-S., Chuang, H.-M., Sangaiah, A. K., Lin, C.-K., and Huang, W.-B. (2019). "A study for project risk management using an advanced MCDM-based DEMATEL-ANP approach", *Journal of Ambient Intelligence and Humanized Computing*, 10(7), 2669-2681.
7. Choi, A. R. (2018), "Study on Assignment of Right under the Export Credit Insurance and the possibility of Exercise of Subrogation", *Korea Commercial Law Association*, 37(3), pp.297-332.
8. Choi, B. G. (2016), "A Study on Situation and Issues of Medium and Long -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7(3), 27-52.
9. Choi, B. G. (2019),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sclosure duty between civil insurance and trade insur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20(3), pp.1-25.
10. Choi, C. H. and Yu, Y. W. (2017), "The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FA and CF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pp.103-111.
11. Choi, K. H. (2018), "A Study on Determinants of Export Payment Terms in Korean Small & Medium Enterprises", *Korea Trade Review*, 43(2), pp.159-180.
12. Choi, Y. C. and Ham, H. B. (2013), "Comparative study for the satisfaction level of export companies in South Korea and China regarding export insurance system",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5(4), 367-387.
13. de Matos, C. A., and Krielow, A. (2018).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B2B e-services purchase: perceived risk and convenience as mediators", *Journal of Business & Industrial Marketing*, 34(4), pp.767-778
14.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pp.4-40.
15. Heo, K. J., Jung, G. I. and Chung, J. E. (2015), "Own-Brand Expor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atisfaction with Export Assistance Programs: A Comparison Study based on the Product Type and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of Host Countri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2), pp.107-120.
16. Hideki, F. (1986). "Export Credit Insurance",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3(4), 679-692
17. Holbrook, M. B., Chestnut, R. W., Oliva, T. A., and Greenleaf, E. A. (1984), "Play as a consumption experience: The roles of emotions, performance, and personality in the enjoyment of gam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2), pp.728-739.
18. Hong, G. J. and Kim, K. T. (2012), "A Study on the Exporter's Measures against Credit Risks in the Changing of Export Payment Methods",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13(1), pp.175-192.
19. Hussein, L. A., Baharudin, A. S., Jayaraman, K., and Kiumarsi, S. H. A. I. A. N. (2019), "B2B e-commerce technology factors with mediating effect perceived usefulness in Jordanian manufacturing SMES", *Journal of Engineering Science and Technology*, 14(1), 411-429.
20. Jang, E. H. and Choi, Y. J. (2019), "A Study on Avoidance Measures of Unredeemed Receivables Risk in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20(1), 25-48.
21. Jeong, H. J. (2021), "A Study on Utilization

- of Export Credit Insurance and Performance Guarantee in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91, pp.177-197.
22. Kang, D. Y. and Choi, K. H. (2014), “A Study on Commercial Risk Management of the exports by smaller enterpriser in Korea : A focus on Trade Insur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5(2), 111-130.
  23. Kim, J. D. (2020),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21(4), pp.165-177.
  24. Kim, J. R. (2015). “ An Analysis on Impacts of Trade Insurance Support to Export Expansion in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6(1), 21-42.
  25. Kim, J. R. (2019),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on SMEs Export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20(4), pp.1-24.
  26. Kim, K. C ,and Jeong, H. J. (2020), "A Study on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of SME Plus Export Credit Insur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21(4), pp.19-31.
  27. Kim, K. C. (2014), “An Acceptance Survey of Exporters and Customer-oriented Proposals on the Government Plan to Open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to Private Insurer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5(2), 35-64.
  28. Kim, S. K. and Park, M. S. (2015), “The Influences of Force Majeure Recognition on the Sustainable Business Relationship in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Korea Trade Review*, 40(4), 41-62.
  29. Kim, S. K. (2019), “The Influences of Perceived Risk and Trust on the Business Relationship in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Korea Trade Review*, 44(3), 155-170.
  30. Kim, S. T. and Lee, H. S. (2012), “An Empirical Study on the Export Payment Risk Management and Risk Management Performance of Export Firms in Korea”, *The E-business Studies*, 13(1), 159. 184.
  31. Kim, T. H. (2020), “Performance Evaluation on the Private Opening of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Market”,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21(1), 89-100.
  32. Kim. C. B. and Park, Y. Y. (2015). “An empirical study on the causal relation of e-trade insurance, risk management factors, and export performance” *The E-business Studies*. 16(3), 265-291.
  33. Koksals, C. (2018). “Export Credit Insurance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Turkey and IMT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erce and Finance*, 4(1), 107-120.
  34. Kudla, N. L., and Klaas-Wissing, T. (2012), “Sustainability in shipper-logistics service provider relationships: A tentative taxonomy based on agency theory and stimulus-response analysis”, *Journal of Purchasing and Supply Management*, 18(4), pp.218-231.
  35. Lee, D. J.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Export Insurance on the Exports of SMEs and LEs." *Korea Trade Review*, 42(2), pp.145-174.
  36. Lee, H. S. (2014), *Statistical Anlalysis Method*, Hangyengsa, Seoul.
  37. Lee, J. H. (2020), “Empirical Analysis of the

- Determinants of Leaks of Korean Import and Export Companies on Risk Manag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21(4), 69-83
38. Lee, S. J. and Kim, H. C. (2017), “The Efficient Management Plan of Export Support Program for Small and Medium Exporting Companies”, *Korea International Commercial Review*, 32(1). pp.253-271.
  39. Lee, S. Y. (2021), “The Role and Tasks of Trade Insurance for Revitalizing Exports in New Growth Industrie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7(2), 605-618.
  40. Lee, Y. and Kim, K. C. (2021), “Influencing Factors of Cross Border E-commerce in Korea”,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23(1), 3-22.
  41. Li, X., Yin, Y., and Zhang, R. (2020), “Examining the impact of relationship-related and process-related factors on project success: The paradigm of stimulus-organism-response”,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pp.1-17.
  42. Lim, S. C. and Park, H. J. (2013), “How to Strengthen Korean Trade Insurance Policy for Activating Start-Up SME’s in Export?”,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4(4), 1-22.
  43. Lorié, J. (2019). “Public credit insurance benefits international trade-but how much?”, *Journal of Risk Management in Financial Institutions*, 12(3), pp.232-240.
  44. Mah, J. S. (2006). “The effect of export insurance subsidy on export supply: The experience of Japan”, *Journal of Asian Economics*, 17(4), pp.646-652.
  45. Moalla, E., and Mayrhofer, U. (2020), “How does distance affect market entry mode choice? Evidence from French companies”, *European Management Journal*, 38(1), pp.135-145.
  46. Na, J. H., Lee, B. H. and Jung, H. J. (2020), “A Study on Support for Export Revitalization in Jeollabuk-do”, *Jeonbuk Institute Policy Research* 2020, 10, pp.1-222.
  47. Nunnally, B., and Bernstein, I. R. (1994). *Psychometric Theory*. Oxford University, New York:
  48. Oh, M. H., Jeong, N. G., Lee, J. S. (2020). “Analysis on the Effects of Online-export Supports for SMEs”,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38(4), 215-235.
  49. Oh, W. S. and AN, Y. S. (2016), “A study on the Supporting the Purchase of Export Receivables via Trade Credit Insurance - Focusing on the Short Term Credit Insurance (EFF)”,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7(1), pp.1-28.
  50. Park, J. H. (2018),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trade insurance system on export performance of exporting SMEs”,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51. Park, K. S. and Ko, J. S. (2018),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Export Support System of Korean SME”, 79, 209-228.
  52. Park, S. H. (2017),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trade insurance system on export performance of exporting SMEs”,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53. Park, Y. H. (2019), “A Study on Determinants of Export Performance of SME Export Support System”,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20(4), 53-88.
  54. Robb, C. A., and Stephens, A. R. (2021), “The

- Effects of Market Orientation and Proactive Orientation on the Export Performance of South African SMEs”, *Journal of Global Marketing*, pp.1-19.
55. Russell, J. A. and Mehrabian, A. (1974), “Distinguishing anger and anxiety in terms of emotional response fact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1), pp.79-83.
  56. Seo, J. D. (2011), “A Trend of International Business Claims and Some Improvable Issues of the Korean Trade Insurance System”,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49, 189-212.
  57. Shamsuddoha, A. K., Yunus Ali, M., and Oly Ndubisi, N. 2009. “Impact of government export assistance on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from developing nations,” *Journal of Enterprise Information Management*, 22(4), pp. 408-42
  58. Sila, I., and Dobni, D. (2012). “Patterns of B2B e-commerce usage in SMEs”, *Industrial Management & Data Systems*. 112(8), pp.1255-1271.
  59. Song, J. S., Y. M. Nam, C. B. Kim. (2021), “Export Promotion Effect under Consideration of Endogeneity and Interaction of Export Insur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22(5), pp.3-19.
  60. Ting, S. H., Yahya, S., and Tan, C. L. (2017), “The influence of researcher competence on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A modified stimulus-organism-response model perspective. *PROCEEDING OF ICARBSS 2017 LANGKAWI, MALAYSIA*, 2017(29th), 365.
  61. Turguttopbas, N. and Küçüker, M. (2020). “Corona Pandemia Times: The Export Credit Insurance as a Trade Finance Tool.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ogistics and Law*, 6(2), pp.168-175.
  62. Wang, Y. X. (2016), “Research on the China export credit insurance : Focus on Jiangsu province”, Ko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63. Xiao, L., Guo, F., Yu, F., and Liu, S. (2019). “The effects of online shopping context cues on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for cross-border E-Commerce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11(10), 2777.
  64. Yin, C. B. (2018),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xport Credit Insurance and Export Performance of Chinese SMEs." Gangwon University Doctoral Thesis.
  65. Yoo, S. G. (2016), “A Study on the Role of Trade Insurance for Market Expansion of SME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7(3), pp.1-95.
  66. Yoo, S. G. (2018),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xport Support of SME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9(3), pp.187-205.
  67. Yu, G. H. (2020),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rade Insurance for Expansion of Advance Payment Terms of Small and Medium Exporter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21(1), pp.41-54.